

# 난방비 올해 38% 급등...서민 가계 '한숨'

### 코로나19·러-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국제에너지 가격 ↑ 지역난방공사 "일정온도 유지로 효율 난방" 당부

# 지난 2012년부터 자취를 하고 있는 20대 후반 민모 씨는 "올해같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광주에 갑작스럽게 한파가 찾아왔지만, 급격히 상승한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최소한의 온기만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안에서 수면 양말과 가디건을 착용하는 등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난방에 손을 못 대는 실정이다. 민씨는 "지난달 6만6천원의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당황했다"면서 "항상 2만원 선에서 사용하던 요금이 3배가 넘어서 충격에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르면서 가정마다 난방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대출금리 폭등에 따른 가계 고정 지출이 상승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은 난방비 요금 폭탄을 피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등 절약에 간간함을 쓰고 있다.

18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해 산정하는 열요금은 난방·온수 사용량을 계량기로 검진해 부과하고 있다. 열요금은 국제가스 가격이 치솟으면서 올해만 3년 이상됐다. 주택용 열요금은 올해 3월 Mcal(메가칼로리)당 65.23원에서 지난달 89.88원으로 8개월 새 무려 37.8%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에너지 수요가 커지면서 난방 연료 가스 가격이 오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국내 열요금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급격하게 상승한 열요금에 시민들은 '가계경제가 얼어붙었다'며 깊은 한숨을 내뿜고 있다.

직장인 김모씨는 방 3곳과 거실로 연결됐던 보일러 밸브를 거실과 침실 빼고 2개 잠갔다.

김씨는 "가족이 주로 생활하는 거실과 침실 빼고는 보일러를 잠가 난방비를 줄여보려고 애쓰고 있다"면서 "보일러 온수 사용도 못 할 정도로 얼어붙어 버렸다"고 토로했다.

# 광주 서구의 한 25평대 아파트에서 4인 가족 구성원으로 살고 있는 오모 씨는 지난달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 매우 당황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6만원 선이던 난방비가 12만원으로 뛰었다. 심지어 지난해는 난방 사용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씨는 "열요금이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아껴서 난방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고지서를 보고 의아했다"면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너무 춥게 유지하면 감기에 걸릴까 봐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요새같이 추운 날씨에도 요금 때문에 보일러를 작동하기 전에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된다"면서 "안 그래도 힘든 서민경제가 난방 온수 사용도 못 할 정도로 얼어붙어 버렸다"고 토로했다.

열요금이 올 한 해에만 3차례 인상돼 8개월 사이 40% 가까이 전정부지로 오



겨울철 난방·온수비와 연관되는 열요금이 올 한 해에만 3차례 인상되는 등 가정마다 난방비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광주 남구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계량기. /김예리기자

지금 할 수 있는 절약일 것 같다"고 한숨 쉬었다.

올로 생활하는 70대 송모 씨는 "주거비와 식품비도 만만치 않게 올랐는데 이 추운 날씨에 난방비까지 걱정해야 하다 보니 살아가는 게 팍팍하다"면서 "겨울이어서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고 허를 찔렀다.

난방비 자체 절감을 위해선 일시적인 고온 난방보단 낮으면서도 지속적인 난방이 중요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세대 내 효율적인 지역난방을 위해서 ▲분배기의 각 밸브를 통해 난방량 조절 ▲우리집에 맞는 난방온도 설정 ▲출근 및 외출 시 난방온도 설정 ▲장기간 외출 시 난방온도

정 ▲동절기 난방온도 설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난방 가동 및 정지는 각방에 설치된 실내온도 조절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실내 온도 조절기가 없을 때는 수동으로 난방수 분배 밸브를 조작할 수 있다. 또 동절기 정부 권장 건강 실내온도는 18-20도로 추위를 느끼면 1도씩 높이면서 적정 온도를 찾는 게 도움이 된다.

출근 및 외출시에는 난방 온도를 2-3도 정도 낮추고 3일 이상 장기간 외출시에는 15도(외출모드)로 설정해야 한다. 장기간 전원을 끄는 시 동파방지를 위해 밸브가 자동으로 '폴오프' 모드가 돼 사용량 증가로 과다요금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관계자는 "동절기(11월-3월)에는 각방의 실내온도 조절기 전원을 외출 시에도 항상 켜두는 것이 좋다"면서 "지역난방은 연속난방시스템으로 24시간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 난방품질대비 요금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고 당부했다. /오복기자

###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 복수직급제 도입**
- 총경급 대상, 하나의 직위를 복수의 직급이 맡음
  - 경찰청 본청 및 시·도경찰청 주요부서에 도입
  - 상황팀장 직위 16개, 경찰청 소속기관 4개, 본청 및 시·도 경찰청 38개 등 총경 58개로 확대

###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 경무관급 정보화정책비서관 → 치안감급 미래지안정책관으로 확대·개편
- 서울·경기남부경찰청, 경무관급 광역수사팀장 신설
- 중앙경찰학교, 경무관급 교수부장 신설

###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 승진 → 경무관 최저근무연수	현행 16년 → 개선 11년(5년 단축 및 개선)
• 승진 → 경장	1 → 1년
• 승진 → 경위	2 → 1년
• 승진 → 경감	2 → 1년
• 승진 → 경정	3 → 2년
• 승진 → 총경	3 → 2년
• 승진 → 경무관	4 → 3년

전체 계급의 최저연수 1년씩 단축, 총 5년 단축

###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 2023년 1월 1일부터 기본급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 재정이건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관 우선 추진
  -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기본급 평균 1.7% 인상 (해경·소방 동시 적용)
- 자료: 행정안전부 연합뉴스

## 경찰 고위직 순경 출신 늘어난다

### 복수직급제 도입 총경 자리 58개 늘려...승진 연한도 16→11년 단축

앞으로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에 순경 출신이 지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는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된다. 또 복수직급제 도입에 총경 수가 더 늘어나게 된다.

경찰 기본급은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된다. 이 조치는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경찰공무원 기본급 상향 ▲복수직급제 도입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

는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월 경찰국 신설을 발표하면서 순경 출신의 고위직 비중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공무원 보수 상향 등의 방안도 내놨었다.

경찰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복수직급제가 마침내 도입된다.

복수직급제는 하나의 직위를 복수의 직급이 맡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1994년부터 운영돼왔다.

이번에 도입하는 경찰 복수직급제는 총경급이 대상이다. 경정만 맡던 자리를 경정

외에 총경도 맡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복수직급제는 경찰청 본청과 시·도경찰청 주요부서에 우선 도입된다.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 상황실을 총경급 상황팀장 전담 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상황팀장 직위,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의 주요 직위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복수직급제 도입에 따라 총경 자리는 58개가 늘어나게 된다. 상황팀장 직위 16개, 경찰청 소속기관 4개, 본청과 시·도경찰청 38개 등으로 올해 8월 기준 총경수(626명)의 10%에 가까운 규모다.

복수직급제는 인력충원 없이 승진직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혀왔다. 이를 통해 총경이 늘어나면 순경 출신의

총경 승진도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은 순경 출신의 고위직 승진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데 걸리는 최저근무연수는 총 16년인데 이를 5년 줄여 11년으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도 따르면 경무관으로 승진하려면 총경으로 4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경정·경감은 3년 이상, 경위·경사는 2년 이상, 경장·순경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승진할 수 있다.

개선안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총경은 3년 이상, 경정·경감은 2년 이상, 경위·경사는 1년 이상으로 각각 단축했다.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할 때부터 5개 단계에서 최저근무연수가 1년씩 총 5년이 줄어드는 것이다. 지난해 국무회의에 올라갔다가 의결이 보류됐던 안보다 총 단축 연수가 확대됐다. /연합뉴스

**바로잡습니다** 본지 12월14일자 6면 '전 여친 스토킹·조폭과 싸움 벌인 30대' 제하기사 중 '조사결과 그는 ...서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와 '이와 별도로 A씨는...1심 재판부로부터 병합 선고를 받았다'는 부분은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서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는 '시비가 일어'로, 'A씨의 스토킹범죄 관련 법을 위반은 합의된 사항으로 공소없음'으로 바로 잡습니다. A씨 가족 및 독자 여러분께 사과 드립니다.

### 목포해경, 섬 응급환자 3명 이상

주말 기상 악화 속에 섬지역에서 응급환자 3명이 해경에 의해 육지로 이송됐다.

19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4분께 신안군 도초도에서 주민 A(50대)씨가 글라인더 작업 중 손목을 심하게 다쳐 대형병원으로의 이송이 필요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응급처치를 마친 A씨를 탑승시키고 암태도 남강산착장으로 이송, 오후 6시43분께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해경은 이날 오후 1시16분께에는 급성 담낭염 증상을 보인 주민 C(30대)씨를 육지로 긴급 이송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 17일 오전 10시 3분께 같은 지역 주민 B(80대)씨가 뇌경색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통해 육지로 이송하기도 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송 당시 해상에는 초속 14-16m의 강한 바람과 높은 파고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기상 악화 속에서도 응급환자 모두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목포=정혜진기자

### 건물 균열 오인 입주민 대피 소동

건물 바닥 타일 뒤틀림을 건물 균열로 오인해 입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19일 광주 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32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건물 5층 바닥에서 균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로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의 안내 방송 등을 통해 건물 내 인원들이 긴급 대피해 별도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열에 민감한 소재의 바닥 타일이 온도 차가 심해지면서 위로 들뜬 것으로 보면서도 정확한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건축주는 민간 업체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단은 2일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안재영기자

그린알로에

#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